

희생자들 대부분 시민... 불 타 숨져

티베트 유혈시위...상점 등 160곳 화재

중국 티베트(시짱) 수도 라싸에서 20만 명의 최악의 유혈 폭력시위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시짱 자치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시위로 1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가 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짱자치구 정부 소식통들은 “희생자들은 모두 일반 시민으로 불에 타 숨졌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호텔 종업원 2명과 상점 주인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는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확인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경찰이 티베트 시위대 100명 정도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시위는 억압적인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티베트인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즉각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시짱자치구 수도 라싸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한 1959년 봉기일 4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라마교 승려들의 소규모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다. 특히 14일 오후 1시 10분(현지시각)께부터 라싸 도심 라모기아사원 인근에서 또 다시 폭력시위가 발생해 차량과 상점 등 160여개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40여개 장소의 경우 큰 불이 났다.

시위대는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한쪽 이주자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한편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한쪽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에 방화를 하고 약탈을 했다. 시짱자

치구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이날 티베트 시위대에 대해 오는 17일 자정까지 투항할 것을 촉구하는 공고문을 발표하고 투항자에 대해 관용을 약속했다.

공고문은 “투항하거나 다른 범법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겠지만 이들을 숨기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폭도들이 학교와 병원, 상점, 민가 등에 불을 지르고 법률 집행 요원들을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시짱자치구 관리들은 “무장경찰들은 폭도들이 방화한 은행과 슈퍼마켓, 학교, 병원 등 시위현장에서 일반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580명 이상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티베트 시위 사태 진압을 위해 군과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과 관련,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바 풍족 시짱자치구 주석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짱자치구 정부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짱자치구 수도인) 라싸가 비상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바 주석은 “어제 시위 사태는 달라이 라마 집단이 조직하고 모의한 폭력, 방화, 약탈, 파괴활동”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시위 사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갑차를 탄 중국군이 유혈 폭력시위가 발생한 지 하루 뒤인 15일, 티베트의 수도 라싸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인민전쟁’ 선포...투항 최후통첩

뉴욕·시드니 등 티베트 동조 시위

20년 만에 최악의 유혈 폭력시위가 발생한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16일 시위가 중단된 가운데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질서 회복을 위한 ‘인민전쟁’을 선언하고 군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는 17일 자정까지 자진 투항하라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다.

티베트 주민들은 이날 중국 무장경찰들이 라싸 시내 곳곳에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일이 가택 수색을 하며 티베트 시위대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긴박하게 움직인 중국 지도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은 14일 오후 7시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15일 새벽 1시를 기해 당·정·지방정부 지도부에 “티베트 상황이 심각하다. 현지 경찰서와 신

화통신 사무실을 포함한 정부 관공서가 불에 탔다”는 내용의 회담문을 돌리도록 조치했다.

그는 또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장칭리 시짱자치구 당서기와 장진평 공안부 부부장 등을 라싸시로 급파해 사후 수습과 시위 재발 방지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시위대 17일 자정까지 투항 통첩=중국 사법당국은 티베트 시위대에 대해 17일 자정까지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투항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시짱자치구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15일 “폭도들이 방화를 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고 비난하고 시위대에 대해 투항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은 “투항하거나 다른 범법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겠지만 이들을 숨기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

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짱자치구 관리들은 “무장경찰들은 폭도들이 방화한 은행과 슈퍼마켓, 학교, 병원 등 시위현장에서 일반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580명 이상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티베트 동조 시위=미국 뉴욕 유엔본부와 인도 뉴델리, 호주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이번 티베트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는 14일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40~50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티베트를 독립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은 티베트인을 그만 죽여라’고 촉구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승려 수십 명을 포함한 1천여명의 시위대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네팔 주재 중국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중국 간수서 사려에서도 3천~4천명 규모의 시위대가 시청을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했다고 티베트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연합뉴스

“용산기지 이전비용 100억달러 대부분 한국측에서 부담할 것”

벨 사령관 美의회 청문회

주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할 것이라고 버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노무현 전임 정부의 언급보다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또 당초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이북의 미군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런 절차에 따라 이미 한국은 20억달러를 지출했다”면서 “광 미군기지를 옮기는 규모”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우리(미국)는 한 가지를 합의했다”면서 캠프 험프리 내의 미군 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으며 그비용이 14억달러(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광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통해 용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를 광택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10조원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 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비용 대부분(the vast majority of that move)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알바니아 탄약고 폭발 200여명 사상

15일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인근 마을의 한 군부대 탄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련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고 알바니아 정부 당국이 밝혔다.

질라 메카니 알바니아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5번째 시체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정오께 첫 번째 폭발이 있고 10분후에 두 번째 폭발이 이어져 상당수가 대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사망자가 최소 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티라나에서 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제르데크 마을의 군부대 탄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첫 번째 폭발 당시에 탄약고 현장에는 110명이 있었다. /연합뉴스

中 전국인민대표회의 원자바오 총리 재선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우방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 헌법상 최고기구인 제1기 전인대 제1차 회의는 이날 제1차 회의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바오 총리를 총리에 재선출했다. 군사위 부주석에는 이번엔 은퇴하는 차오강한 국방부장이 제외되고 기존의 귀보송과 쉬차

이허우 등 두 명만 유임됐다. 이에 앞서 15일에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국가 주석과 상무위원장에 재선출됐고,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은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돼 차기 대권 후계자 자리를 예약했다.

전인대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장관 등을 결정하고 18일 폐막한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반 중국 시위를 벌이던 티베트 승려와 시위자들을 경찰이 곤봉으로 위협하며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전남 이분기농장도

대산프리모 남녀기발

확장이전

이용사 개편지도

세일 30%

가발

추슬림!!

귀여운 풀무원 인격을 보여주는 행복한 풀밭지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11-873-3028, 873-8222
 원장 이수재 011-800-8955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명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임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2. 선임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3. 선임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문의: 011-233-0100, 011-501-0000, 011-737-0100